



오리&축산뉴스

01

가정의 달, 우리 축산물 최대 50% 할인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형마트 등 할인행사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돌아오는 가정의 달 5월에 축산물 할인행사를 기획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이번 축산대전에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한우, 한돈, 우유, 육우, 오리, 닭고기, 계란 등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해당 기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 온라인장터와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 개소에서 50%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프라자' 92개소에서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할인 매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월 근로자의 날 및 오리데이(5월 2일)를 맞아, 축산자조금위원회가 중심이 돼 5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행사의 목적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가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해 국내산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행사는 임시 매장(Pop-up Store)형식으로 진행되며,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 7개 축산단체 단체장 및 낙농진흥회장 등이 참석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2023년 대한민국 축산대전' 축산물 할인행사로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소비하는 한편, 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축산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

김삼주 한우협회장, 만장일치 추대로 축단협 회장 취임 “소통·화합으로 공동대응력 올려 축산농정 재정립”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1일 열린 2023년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의 새 사령탑으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축단협을 구성하는 25개 축산관련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신임 축단협 회장에 추대했다. 부회장으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삼주 회장은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 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축산업의 대변자로 항상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임원 선임 건 외에도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도 원안 승인됐다. 사업계획에 따라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대응, 단백질모방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 재정립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정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_ 한국농정신문 www.ikpnews.net

03

조류독감으로 육계·오리 줄어...한·육우는 증가↑
 통계청,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발표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올해 1분기 축산농가의 육용 닭과 오리 사육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육우는 도매값이 하락했음에도 전체 사육두수는 늘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 사육 마릿수는 조류독감 피해 및 병아리 원가 상승으로 1개월 미만 마릿수가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3만8,000마리(-1.3%)가 줄어든 8,885만2,000마리를 기록했다.

오리 사육 마릿수도 482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88만4,000마리(-15.5%) 감소했다. 조류독감 피해 및 일부 지역 사육제한 시기 연장으로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달걀을 낳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368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325만6,000마리(4.6%) 늘었다. 지난해 3~9월 입식 마릿수 증가로 6개월 이상 성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59만1,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마리(0.9%) 늘었다. 송아지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누적된 사육 마릿수 영향으로 2세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지만 1세 미만 마릿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 개체수가 줄면서 낮아졌던 한우 도매가가 향후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1,111만1,000마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000마리(-0.5%) 줄고, 전체 사육 마릿수도 감소했다.

젓소는 38만5,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마리(-3.0%) 줄었다.

출처_연합뉴스 www.yna.co.kr



04

오리협회 함평군지부, 오리훈제 무료시식 판매키로 함평군·축산단체, 함평나비대축제 협력 행사 운영



지난 3월 22일 군청에서 열린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축산프로그램 협의회(사진제공-함평군)

전남 함평군과 지역 축산단체가 제25회 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3월 22일 함평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축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은 관광객들이 고품질의 함평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평천지한우 셀프식당 및 판매장을 운영한다.

한국오리협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최재석)는 오리훈제와 계란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대한양계협회 함평산란계지부는 축산물 시식회와 판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계란 6만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낙농육우협회 함평군지부는 우유 생산과정과 유제품 시음, 젓소 캐릭터 모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함평천지한우(5월 5일), 한돈(5월 6일), 오리훈제(5월 7일) 무료 시식행사가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다 내실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객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출처_뉴스메이커 www.newsmaker.or.kr

05

영암·장흥 오리농장서 각각 고병원성 AI 발생



사진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과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고 지난 4월 1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총 75건으로 늘었다. 전체 75건 중 30건(40%)이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두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뒤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영암군 소재 농장에서는 오리 약 1만4,000마리를, 장흥군 농장에서는 약 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_연합뉴스 www.yna.co.kr

06

오리협회 정읍시지부, 이웃돕기 훈제오리 전달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복지 사각지대 이웃사랑 실천

한국오리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유종수)가 지난 4월 3일 정읍시에 94만5,000원 상당의 훈제오리 180g 210팩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훈제오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의 허기와 영양을 채우는데 쓰일 예정이다.

유종수 지부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주민들께 영양가 있는 훈제오리를 대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유냉장고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출처_전북도민일보 www.domin.co.kr



07

농축산연합회 신임 회장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선출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앞장서겠다”



국내 대표 농축산인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신임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선출됐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제11기 집행부 구성을 단행했다.

11대 회장 선출은 손세희 한돈협회장, 원용덕 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세 후보의 경합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이승호 회장이 11대 농축산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이승호 신임 회장은 연합회 발전을 위한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에는 쌀·축산물 가격 불안정, 도농 간 소득격차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연합회 회원 단체들과 단합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현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단체 사이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업계가 한마음으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해 연합회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해 8월 대표자회의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승호 신임 회장 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11기 집행부는 이승호 회장을 필두로 부회장 4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감사는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원용덕 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이 총회 추천을 거쳐 선출됐다. 부회장 4인 등 남은 임원은 정관에 따라 회장 지명으로 차후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농축산연합회는 자주적인 농축산인 단체 협동체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농권 활동을 통해 농축산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 출범했다.

회원으로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돌곶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무순) 등 24개 단체를 두고 있다.

출처_ 한국농업신문 www.newsfarm.co.kr